‘청년희망도시’ 전주만의 청년정책

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 청년취업 2000 사업 추진 · 청년 활동공간 등 운영

전주시가 고졸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돕고 나선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업 환경에 있는 고졸 청년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함이다.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취업장려금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앞서 전주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희망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전주형 청년정책을 펼쳐왔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달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들어선 전주ICT이노베이션 스퀘어 개소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청년이 일하는 전주

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위축된 청년들을 위로하고, 구직난에 힘겨운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노동시장 침체로 힘겨워하는 지역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전주형 청년정책을 대표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개인별 심리검사와 그룹별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취업 준비와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 등 다양한 고민을 덜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신을 되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힐링캠프, 사후 심리검사, 청년쉼표 에세이를 통해 재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현재 전주지역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제14기 프로젝트가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청년취업 2000’ 사업도 전개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50~65만원씩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 직무전문성을 훈련하고, 현장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 총 189명 규모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게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중소기업·문화예술·임업 등 7개 분야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속에서 취업 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춘꿈꿀옷장’ 사업도 펼치고 있다.

▲청년이 꿈꾸는 전주

시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더불어 도시 곳곳에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늘려왔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달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들어선 전주ICT이노베이션 스퀘어를 꼽을 수 있다.

전주ICT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가 입주한 청년이음센터의 2층~5층에 둥지를 틀었다. 세부적으로 2층~4층은 오픈스페이스 회의실과 가변형 세미나와 교육이 가능한 이노베이션랩, 4차 산업혁명 기반 ICT전문교육장으로 구축됐으며, 5층은 창업관과 3D 메이커스 창작실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컴아카데미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기업종사자, CEO 등 45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전문교육이 진행되고, 국내외 유수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디지털뉴딜 특강도 운영된다. 전주ICT이노베이션 스퀘어가 위치한 전북 VR·AR 제작거점센터도 기업입주실과 오픈디랙팅랩, 크로마키스튜디오, 오픈랩, 교육실, 실감미디어랩(편집지원실), VR Dome(테스트베드), 운영사무실, 회의실 등의 공간과 특화장비를 갖춰 청년활동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여기에 시는 기린대로 병무청 오거리 인근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작활동으로 이어지고, 청년활동을 기반으로 창직·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청년상상놀이터도 운영하고 있다.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에 마련된 창업기지인 ‘전주혁신창업허브’와 현재 조성중인 노송동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에도 청년창업가 등이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시설도 마련된다.

시는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또래들과 어울려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소통공간도 늘려나가고 있다. 모임을 위한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공간 이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소통공간 ‘비빌’이 대표적이다. 비빌에서는 청년들이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요구에 맞춰 심리·금융·진로·직무 코칭 등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밖에 시는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을 운영하고,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전주형 청년사회주택 공급 등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청년희망도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청년희망도시 전주만의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고,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활동공간 제공 등 꾸준히 청년 지원정책을 늘려 전주가 청년희망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동부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비율 상향

전주시, 비율 최대 80→90% 변경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 부담금 낮추고 LH 적극적인 사업 참여 가능 기대

전주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택 비율 상향 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르다.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사업 시행자로 협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시는 상가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소 10%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돼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난항을 겪은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며 “LH 및 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합 협업 체제를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백신 접종 사전예약하세요”

전주시, 내달 3일까지 만 60~74세 시민 등 10만9000여 명 대상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 질병관리청 · 시 예방접종 콜센터서

만 60~74세 시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접종 대상자들의 사전예약을 당부했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만 60~74세 대상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10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193개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된다.

접종 대상자 중 만 70~74세 시민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의 경우 바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5~69세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60~64세 시민과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는 오는 13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보호자가 본인 인증만 거치면 대리로 예약도 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전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063-288-5056~65)를 통해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사전예약을 마친 65~69세, 70~74세,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호흡기장애인)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60~64세 대상자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19일까지 접종을 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사전예약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한 주민센터 전담자를 통한 예약 지원도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은 반드시 접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회혁신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팀 모집

탄소중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이 혁신 활동을 펼친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센터장 원민)는 다양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발굴하기 위한 ‘2021년 사회혁신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요즘 것들의 사회혁신’에 참여할 60개 팀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라북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사회문제 탐구생활 ▲사회문제 심화 탐구생활 ▲지역자원 탐구생활 ▲소셜부캐 탐구생활 ▲탄소중립 탐구생활 ▲혁신센터 탐구생활 등 6개로, 이 중 1분야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돼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혁신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신청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일상의 새로운 변화를 실현하고 싶은 3인 이상 모임이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 양식 등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jsi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